

부활하신 생명과 연합할 때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막 9:9).

:

인자가 당신 안에서 부활하실 때까지 아무것도 말하지 마십시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당신을 다스리면 역사 속에 계셨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이해하게 됩니다. 당신의 내면이 바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이 너무나 자명하게 되어, 왜 전에는 그 말씀들이 보이지 않았는지 놀라게 됩니다. 전에 당신이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다는 사실은 그때 당신의 마음은 그 말씀들을 감당할 만한 '상태'가 아니었음을 보여줍니다.

주님께서는 아무것도 숨기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영적인 생명의 합당한 조건에 이르기까지는 그 내용들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요 16:12. 따라서 우리가 특별한 어떤 말씀을 이해하려면 주님의 부활하신 생명과의 연합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의 부활하신 생명이 우리에게 부여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만일 그 부활하신 생명이 우리에게 부여되었다면, 그 증거는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마음에 주님의 성령이 없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계시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의 고집스러운 편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계시하시는 것을 효과적으로 막습니다. 자기가 믿는 교리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빛은 더 이상 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빛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될 때 그 완고한 상황은 당장 끝나게 될 것입니다.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변화산에서 본 그 영광을 말합니다. 그들은 뭔가를 보았고 그래서 증거하지만, 만일 그들의 삶이 주님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인자께서 아직 그들 안에서 부활하신 것이 아닙니다. 언제쯤 주님의 부활 생명이 당신과 내 안에 형성되겠습니까?

부활하신 생명과 연합할 때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막 9:9)

부활의 삶을 산다는 것

하나님은 아무 때나 누구에게나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전제가 됩니다. 챔버스는 이러한 견해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이미 우리에게 말해 주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묵상은 첫 문장에서 모든 것을 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자가 당신 안에서 부활하실 때까지 아무것도 말하지 마십시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당신을 다스리면 역사 속에 계셨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 하셨던 많은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정작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떠나시고 부활 승천 하신 이후에 그 의미를 깨닫게 되죠. 중요한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성령을 체험하고 난 후에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었던 주님을 새롭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인격적인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순간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순간 오히려 우리는 의아한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아, 내가 왜 그 말씀을 듣고도 이해하지 못하고, 내 눈에 보이지 않았던가!"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부활의 주님과 연합되지 않은 우리들이 그 말씀을 이해할 상태가 아니었음이 분명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주님이 우리에게 숨기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가 주님의 말씀을 감당할 수준이 되지 못한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12절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특별한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과 '연합'되어야 합니다. 챔버스가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인격적 연합'입니다. 이때 우리는 주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고, 주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어 올바른 사명자의 길을 가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증거는 무엇일까요? 이제 간단하고도 명확해 졌습니다. "그 분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분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주님의 말씀이 깨달아 진다면, 성령께서 내 속에 역사하고 계심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유학하던 시절 아주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있었습니다. 1990년대 중반에 미국에 있었던 영적대각성운동인데, 'Promise Keepers'(약속을 지키는 사람들)라는 남성들의 회개 운동이었습니다. 그 당시 대형 경기장에 모인 남자들이 무릎을 끊고 눈물을 흘리던 장면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이들이 주제가였던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라는 찬양을 부르며 눈물을 뚝뚝 흘리던 장면이 눈에 선합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일들
이젠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심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예하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앓이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진심으로 무릎을 끓고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증거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성령의 역사’ 그리고 ‘주님과의 연합’을 가로막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집스러운 편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계시하시는 것을 효과적으로 막습니다. 자기가 믿는 교리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빛은 더 이상 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빛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도 오늘 묵상을 통해 많이 생각해야 합니다. 조금은 혼란스럽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 우리의 고집과 편견이 이를 막고 있습니다. 그로인해 부활하신 주님의 빛이 우리 속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말일까요? 무엇이 먼저일까요?

저는 이런 답을 내놓고 싶습니다. 혹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오지 않을 때, 자신의 고집이 작동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요청해야 합니다. 또한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고 내 안으로 들어오는 때,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음을 믿으며 환영하십시오. 이것은 도식적인 관계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민감하게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부활의 주님으로 인해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아닐까요?

오늘 본문은 유명한 ‘변화산 사건’입니다. 놀랍게 변모한 주님의 모습을 보았던 제자들에게 주님은 이와 같은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들이 변화산의 영광을 보았지만 아직 그것을 증거 할 능력이나 주님이 누구인지를 드러낼 지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영광을 보았지만 아직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 안에 계신 것은 아닙니다. 오늘 묵상 중에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할 질문입니다. “언제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할 수 있을까요?”

김병삼 목사의 한줄 노트 주님의 말씀이 아직 내 안에서 이해되지 않는다면 자신의 내면이 어떤 상태인지 정직하게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묵상 질문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묵상레시피 | 사도행전15:1-21 + 마가복음 9:9

바울 일행은 왜 예루살렘에 가게 되었습니까? (1-2절)

이방인들을 배타하는 이들의 논리는 무엇이었습니까? (5, 21절)

베드로가 성령을 통해 깨달은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8-11절)

야고보가 성령을 통해 떠올린 선지자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16-18절)

성령을 통해 깨달은 그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19-20절)

선택과 결정을 위해 그들이 삼은 기준은 무엇입니까?

다양한 견해들 가운데 회의의 주체가 된 분은 누구십니까?